본 협회 현상설계를 바라보며

Observing the Institute's Design Competition

박영순 / 건축사사무소 상화
by Park Young-Soon

서울 서초동에 건축사협회가 들어선 지 20여 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해온 건축사협회 회관이 구조노후화와 많은 갈등 속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중요한 시기를 함께 하게 된 회관건립위원회 일원으로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협회생각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짧게 정리하고자 한다.

혼란의 시기가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하듯이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많은 회원들에게 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로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상설계를 신청한 76개 작품 중에서 마지막까지 제출한 작품은 20개뿐이라는 결과는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할 뿐이다. 더 많은 회원들이 불꽃 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멋진 우리의 집〉을 함께 끄집어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일부 혹자는 현상설계에 참여하고 싶어도 회원들이 뱉어낼 엄청난 화살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변명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너무 잘 아는 건축사들 간의 경쟁(?)을 우려해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듯하다.

또 다른 이유는 20년 전 젊은 건축사 송광섭이라는 스타를 만들어냈듯이 모처럼의 기회를 젊은 후배 건축사의 등용문으로 인식하신 선배들의 양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상설계에 더 많은 작품이 나오지 않은 결과는 협회가 충분히 검토해야할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성이 있다 없다하는 문제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작품을 고민해주시고, 최종 작품을 제출해준 20명의 건축사에게 진정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다.

회관건립 문제는 처음부터 8,500여명 전국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총회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터라 협회 관계자들이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어질 수 없어서 발 빠르게 진행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많은 건축사들이 현상설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공통적인 경우가 당선안 1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 달 이상 밤새면서 고민한 계획안이 더 이상의 토론이나 햇볕도 보지 못한 채 천덕꾸러기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는 심사위원들의 너무 짧은 심사과정에서 미처 계획한 건축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건축 디자인 보다 도면 효과나 모형 등으로 평가되는 게 아쉬웠던 경험들을 토로해왔다. 이번 건축사회관을 현상설계하면서 우리끼리라도 서로에게 동반자역할을 하고, 끝마무리가 되었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뜻을 회원 모두에게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작은 토론회를 갖기도 했지만 실제로 소수만이 참여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시해주신 아이디어 몇 가지를 보면;

- 이번에는 제대로 시간을 갖고 회원 모두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 심사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 계획에 참여한 건축사가 자신의 작품을 제외해서 심사하면 좋겠다는 의견
- 충분한 임대면적의 확보로 회관이미지보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우리 회원 모두가 심사위원이 되어 전시작품에 한 표씩 표를 행사해서 집계하자는 의견
-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계 전반의 행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건축사협회회관이 중추적인 장소로 쓰이면 좋겠다는 의견
- 획기적인 작품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등

깔아놓은 멍석보다 앞, 뒤에서 더 많은 의견이 분분했지만 드디어 지난 11월 28일 20개 작품으로 이번 현상설계는 마감됐다.

전국 시도회원의 〈많은 심사위원 참여〉의 의견을 수렴해서인지 1차에서 55명의 심사위원이 선정되었고, 그 선정된 심사위원 중에서 그날 40명이 1차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역대 현상설계에 없었던 40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들은 협회의 큰 잔치로 이벤트다운(?) 구성이 되긴 했지만 심사과정의 합의점으로 도달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점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심사위원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디자인 컨셉이 바뀌지 않는 한 충분히 가능성 있는 7개 작품으로 선정이 된 것이다.

일부에선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소수의 지명설계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회원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전문가다운 표현이 모자라는 작품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7개 작품을 더 가다듬고, 보충해서 최종 2차 심사를 해야할 것이다. 12월 말이면 2차 심사에서 당선안이 확정되고, 그 당선된 안으로 2004년 한해는 바쁜 공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본 협회는 다른 현상설계와 달리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

그러기위해서 1차와 2차에 제출된 스터디 모형과 도면은 전시나 책자를 통해 현상설계에 참여한 건축사의 계획의지도 심도 있게 다뤄서 제대로 된 결과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나 단체에서 리더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건 우리가 그 방향을 바라보려고 했는가 하는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대안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은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았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협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건축사〉라는 직업이 정말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요즈음에 비전 있는 미래를 제시해줄 수 있는 멋진 회관이 탄생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역사적으로 재창조되는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작품을 내시느라 애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